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다니엘 성경: 다니엘 1장 8-16절

Tag:

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0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나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11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12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14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이롭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6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단1:8-16)

왜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을까? 그가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 과연 채식이 몸과 정신에 이로워, 건강하게 하고, 정신이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 현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채식만으로도 인간은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러려면 많이

먹어야 한다. 소도 많이 먹는다. 말도 많이 먹는다. 하마도 풀만 많이 먹는다. 코끼리도 매우 많은 풀을 먹는다. 중국곰 팬더는 거의 하루 종일 대나무 잎을 먹는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주의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더럽힘을 당하지 않으려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려 했다. 당시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 때였으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 우상에게 드려진 왕의 진미를 먹는 것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다.

다른 모든 관리들은 먹을 권리가 없어서 먹지 못하는 음식이었다. 왕의 진미에 참여케 되었다는 것은 일종의 특권이였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진미를 거부하였다. 한편으로는 따돌림 당하기 딱 좋고, 한편으로는 왕의 명령을 거역한 셈이니 위험하다. 좋은 관계를 위한다면 다니엘에게 유리한 것은 없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 뜻에 집요하였다.(다른 것이 아닌) 그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인가를 생각했다. 그는 질서를 어기지 않으려고 했다. 그는 자신의 결단 때문에 손해가 나는 사람이 없도록 배려하였다. 사실 채식 때문만으로는 아무도 손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면 아무도 손해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을까?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 해석은 매우 폭넓은 해석이다. 해석의 폭이 넓다는 것은 정곡을 찌르는 해석은 아니라는 말이다. 맛있는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포로 신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왜냐면 상관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그렇게 살아간다. 물론 그렇더라도 마음 한 구석은 꺼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관계를 생각하고, 귀찮은 걸 생각하고, 혹시나 왕따 당할 것을 생각하고, 또 상관에게 잘못 보이면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이러다 손해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묻어두고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나 한 사람 그렇게 한다고 나라가 독립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는 나는 똑똑하거나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평범하게 세월따라, 세상따라 흘러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 다니엘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였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오래 기도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다니엘이 자기 자신과 싸워 승리하였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영적 전쟁은 엄밀히 말하자면 먼저 자기 안에서 선과 악의 싸움이 일어나고, 선이 이기는 것이 영적 승리이다. 정결함과 더러움이 싸울 때 정결함이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승리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 먼저는 우리 안에서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다.

다행히 하나님이 도우셨다.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 환관장은 다니엘의 중심을 헤아릴 수 있었다. 그러나 환관장은 왕을 두려워하였다. 다니엘 때문에 자신의 지위가 위태해지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그는 다니엘의 청을 거절하였다.

그렇다고 다니엘은 물러서지 않았다. 다니엘은 자기 소속 감독에게 이제는 제안을 하였다. 열흘만 채식을 하게 한 다음 우리를 비교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열흘 후에 우리 얼굴이 다른 사람들 보다 초췌해 보이면 우리는 당신의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청원이 아니라, 도전을 하였다. 그것도 상대방으로서는 손해나지 않을 조건을 제안한 것이다.

감독으로서는 손해날 것 없었다. 결과는 오직 다니엘의 얼굴이 초췌

해 보이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 채식을 하든, 왕의 진미를 먹든 결과는 동일하다. 왕께도 아무런 실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감독은 환관장을 설득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또 도우셨다.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채식을 열심히 먹고,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다. 초췌하게 보이지만 않으면 될 것인데,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생도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빛나게 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기뻐하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증거가 된다.

다니엘은 자신을 위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그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고, (맛있는 음식 먹지 못함.) 심지어 관계가 틀어지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보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길을 선택하였다.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 모든에게 선하고 정당하고 마땅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역겨운 일이었다. 왜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이 불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 음식에 독이 있거나, 그 음식에 귀신이 붙어서 다니엘을 괴롭힐 것은 아니다. 하나님도 크게 상관하지 않으실 것이다. 다니엘은 기도하고 먹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 그 음식은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음식 때문에 스스로가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거룩함과 식탐 사이에서 거룩함을 선택한 것이다. (음식의 양에서 거룩함과 식탐이 나누인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양이 기준이다. g. 먹는 속도를 조절 하든지, 양을 조절하든지 하라. 식사는 영양을 기준으로 하고, 간식은 열량을 기준으로 한다.) 즉 영적 전쟁을 한 것이다. 다니엘은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악한 마귀와의 전쟁을 한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이처럼 마귀를 대적하게 되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채식을 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다니엘의 이런 태도 때문에 결국 훗날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한 달 동안 오직 왕에게만 기도할 것을 법으로 만들기도 했지 않는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 말자.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공공연하게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자. 그렇다고 그것이 자랑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영적인 이유로 불편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잘 된 것이다. 왜냐면 마귀가 패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으나, 예수는 자랑거리이다.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우리는 포로 되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고백이다.

오늘 우리는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유혹도 당하고 시험에도 들지만, 우리를 깨우치시는 분이 하나님이며, 우리는 깨우치는 대로 회개하는 겸손한 자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 않는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우리는 다시금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이다. 우리는 마귀가 쏘는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릴 수는 있어도, 마귀가 우리를 이기게 할 수는 없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오직 다니엘만을 위한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기도하거나 구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만들었다. 그러나 다니엘은 버젓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평상시처럼 예루살렘을 향하는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때 다니엘의 기도는 정치적 영적전쟁이었다. 그들은 정치적 목적 때문에 다니엘만을 없애기 위한 법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결과는 다니엘의 승리요, 정적들의 죽음으로 끝났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온 세상이 기독교인들, 특히 개신교인들을 미워하며 만든 법안이 동성애 인권법이다. 이제 혐오 금지법을 만들어서 기독교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한다. 이것은 곧 성경의 가치관에 대적하는 법이다. 수많은 나라들이 이 법을 세우고 특히 개신교국가들이 이 법에 넘어갔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인권이라는 가치관을 내세워 말을 그럴듯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영적인 꼼수를 읽어야 한다. 그들이 인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누군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한다고 외치는 자들은 전혀 동성애자들 편이 아니다. 그들은 그저 기독교를 싫어할 뿐이다.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도 동성애자의 인권을 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세상이 자기를 싫어하고 왕따 당할 것을 무서워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보다는 영적으로 더러운 자들이 자기를 비난할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인권이라고 외칠 때 속아 넘어간다.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고 한다.(이 말은 기독교인 중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우리가 미워하지 말아야 할 인간은 죄를 뉘우치는 인간이다. 죄를 부끄러워하는 인간이다. 죄인보다 더 혐오스러운 자는 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인간이다. 동성애자이면서 쿼어축제를 여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다. 모든 동성애자가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쿼어축제를 여는 자들이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고, 우리가 그들을 혐오하는 것을 죄로 여기는 것 자체가 논리에도 어긋난다. 혐오하

는 것이 부도덕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억지이지만,(논쟁거리일 뿐.) 혐오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모든 율법주의를 회개해야 한다.

오늘날의 고난은 배고픔의 고난도 아니요, 전쟁의 고난도 아니요, 혈벗음의 고난도 아니요, 질병의 고난도 아니요, 가난의 고난도 아니다. 오늘의 고난은 개인이 더럽히지 않으려는 고난이 아니요, 나라와 민족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고자하는 고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처럼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 국법 같지 않는 국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국법은 지켜야 하는 법이 아니다.

우리의 주장은 동성애자들을 잡아 가두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슬람 사람들을 몰아내자는 주장이 아니다. 그들이 이민 오고 싶다면 적어도 기독교인들을 대적하겠다는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는가? 우리는 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이 영적전쟁에 동참합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 마태복음 28장 19-20절

Tag: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28:19-20)

제자로 삼으라;

1:1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들끼리 성경을 공부하라. 가능한 만큼 제자와 1:1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라.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는 말은 정식으로 교인을 만들라는 뜻.

목사와 직접 영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뜻.

최소한 3회(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스스로 올 수 있으면 모를까 인도자가 같이 오라.)

목사에게 직접 제자의 도를 배우게 하라는 뜻.

이때는 꼭 인도자가 동성하면서 돕는다. 인도자와 복습한다.

교인이 되는 윤리를 가르친다. 예배, 경건, 헌금, 봉사, 윤리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자기 말을 잘 듣게하라. 강제로 하지 말고 본을 보이고, 섬기라.

자기가 정확하게 아는 것만 가르치고 모르는 것은 목사에게 물어라.

헤갈리기 쉬우니 다른 목사에게까지 가서 배우려고 하지 말라.

온누리교회와 CGN TV, CTS, C채널 정도는 좋다.

왜냐면 이들은 좌파가 적기 때문, 기독교방송 CBS, 오마이뉴스, 등은 기독교매체 이면서 좌파 정치색이 강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복 받게 하라;

불지어다-경험하라. 복 받는 것을 보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의미.

복 받기 위해 기도하라. 기적을 초청하라. 전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복 받는다.